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사람은 다 다르고 다 똑같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보리(菩提:지혜)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한낱 천제(闡提)일 뿐이야.”

問 如何是菩提
師云 者箇是闡提

‘보리’라는 말은 지혜라는 말이다. 지혜는 지혜인데 반야 지혜와 다른 지혜이다. 반야(般若)는 아는 것을 버렸을 때 나오는 지혜이다. 그러나 여기 보리(菩提)는 진실을 깨달아 얻은 지혜를 말한다. 천제(闡提)는 깨닫지 못하는 둔재를 말한다.

조주 스님은 깨달음을 통해서 우주를 관통하는 보리지혜를 얻은 사람을 한낱 둔재인 천제(闡提)와 같다고 말했다. 왜인가? 지혜와 천제는 같기 때문이다. 우주를 관통한 지혜를 얻은 자라면 당연히 천제와 같아진다. 그는 아무 것도 몰라진다. 아무 것도 모르나 마음은 한 없이 고요하고 평온하다. 천제는 대지혜가 없어도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

일체지에 통달한 사람은 한낱 작은 지식에 안주하지 않는다. 그는 옳다는 것, 착하다는 것, 나쁜다는 것, 모든 법칙, 온갖 주의 주장을 다 버린 사람이다. 그는 일체를 초월하고 일체를 벗어났기 때문에 한 주장에 얽매어 인생을 소모하지도 않고, 또한 일체의 지식을 무시하지도 않는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고요한 행복인 니르바나이다. 그는

행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뿐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대인상(大人相)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좋은 자손이다.”

問 如何是大人相
師云 好箇兒孫

대인(大人)은 큰 사람을 의미한다. 성인이나 부처의 자리에 오른 사람을 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주 선사는 대인은 그냥 좋은 집안의 자손일 뿐이라고 말할 뿐 달리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다. 사람이 큰 것은 그가 집안 내력에 의해서 키가 크게 태어난 사람일 뿐이다. 누구도 크다는 의미를 붙일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같다. 다 같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사람 위에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사람이 하는 일이나 신분이 다르다고 해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또한 사람 위에 신이나 어떤 위대한 존재를 올려놓아도 안 된다.

그것은 동물도 마찬가지이다. 소, 돼지, 말, 지렁이 등도 살아갈 권리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지구 위에 사람만이 유일한 주인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누구를 막론하고 생명 있는 자는 다 지구의 주인으로 존중해야 한다.

학승이 물었다.
“열반에 들어가 아무 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자네 뒤에 있네.”

問 寂寂無依時如何
師云 老僧在你背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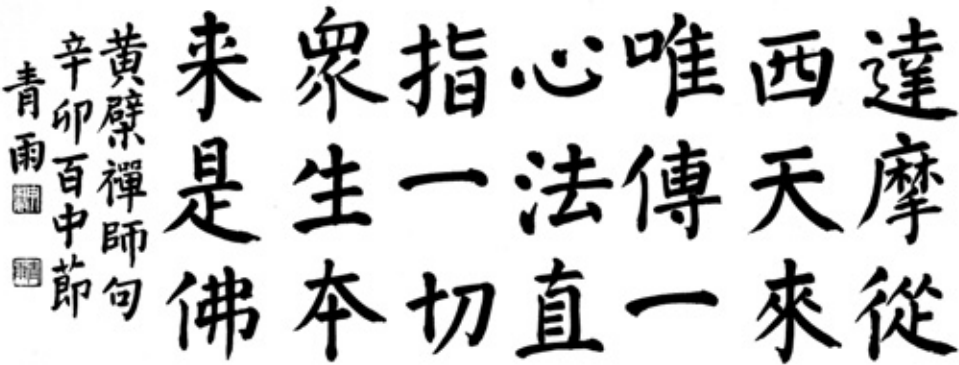
열반은 ‘고요한 정신세계’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번뇌가 쉬고 중생의 욕망이 사라진 고요한 정신세계가 열반(nirvana)이다. 곧 최상의 행복을 얻은 상태이다.

무의(無依)는 스스로 섰기 때문에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천하장부는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더 이상 원함이 없고, 더 이상 시비장단에 대해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의지할 것이 없다. 아는 것에 의지하지 않으며, 감정에 의지하지 않으며, 옳고 그름에 의지하지 않으며, 더러움과 깨끗함에 끌려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런 사람을 무의도인(無依道人)이라고 부른다.

열반에 들어가 의지할 것이 없어진 경지에 대해서 조주 선사는 너털너털 설명하지 않았다. ‘의지할 것이 없다’는 이 한 마디로 충분한 것이다. 그래서 조주 스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자네보다 못해. 나는 자네 뒤에 있는 사랑일 뿐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운상민의 서화산책 황벽선사구



達: 통달할 달
磨: 갈 마
唯: 오직 유, 누구 수
直: 곧을 직
指: 가리킬 지
切: 끊을 절, 온통 체

정신황벽종지심유서달
우요벽시생일법전천마
백선불본체지일래종
중사
절구

사람이 부처님이다

達磨從西天來 唯傳一心法 直指一切衆生 本來是佛 (달마종서전래 유전일심법 직지일체중생 본래시불)
달마 대사가 인도로부터 동토에 온 것은 오직 한 마음의 법을 전해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바로 가리켜 주려는 것이다. -〈완능록〉 황벽선사구 中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선어록 해제 한국선과 선어록

경허집(鏡虛集)

경허 스님 오도송은 확신에 찬 희망노래

한국 근대선승인 경허성우(鏡虛惺牛; 1846~1912)는 어지러운 나라 안팎의 상황과 조선시대 불교배척의 역사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던 암울한 시기를 살았다.

경허 스님은 불교중흥이 멀게만 느껴지던 차에 결연히 함께 정혜(定慧)를 닦아 도술전에 태어나 성불하려는 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불음(佛音)의 용트림을 준비해 한국근대불교의 터를 닦아준다는 점에서 한국의 달마라는 평을 붙여도 좋을 터이다.

경허 스님은 1846년 8월 24일 전주 자동리에서 태어났고, 9세의 나이에 정계사에서 계허를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동학사의 만화 화상을 참문하고, 10여 년 동안 경론소(經論疏)를 공부하고, 23세 때 동학사에서 개강했다.

34세 때는 ‘여사미거 마사도래(驢事未去 馬事到來)’의 화두를 참구해 “소가 되어도 뿔구멍 뚫을 곳이 없다”라는 기연에 깨침을 얻었다. 35세 때 오도송을 읊었다.

조선 선풍 발전위해 선교일치 주장

조사선 대중화시켜 결사로 전개

간화선풍 진작해 시삼마 화두 강조

화두 참구할때 일심불란 유지하고

일체중생이 선지식임을 알아차려야

사랑을 돌려봐도 사랑 없으니 四顧無人
의발을 누구에게 전해 받으랴 衣鉢誰傳
의발을 누구한테 전해 주리요 衣鉢誰傳
사랑을 돌려봐도 사람이 없네 四顧無人
봄 산에 꽃이 피고 새가 울며 春花笑鳥歌
가을 밤 달 밝고 바람은 맑네 秋夜月白風清
곧바로 이와 같은 시절일진댄 正恁麼時
무생가를 몇 차례나 읊었던가 幾唱無生一曲歌

경허 스님은 67세, 1912년 4월 25일 그 마을에서 열반승(涅槃)을 남기고 입적했다.

〈경허집〉은 경허 스님의 법어와 시문 등을 엮은 것으로 1931년 처음 방한암의 필사본이 간행된 이후 1943년에 선학원 간행본으로, 기타 20세기 말에도 간행됐다.

경허성우의 선사상은 첫째, 조선불교 속에서의 선종의 중흥과 발전으로서 그것이 선교(禪敎)의 일치로 승화됐다. 둘째, 경허선풍이 지니고 있는 조사선의 일상화 내지 대중화로서 그것이 결사의 조직과 전개로 나타났으며 셋째, 전통적인 수행범이었던 간화선풍의 진작으로서 특히 시삼마(是甚麼) 화두를 강조한 점을 들 수가 있다.

경허 선사상은 화두일념 내지 관법을 통한 내면적인 안심과 그것의 외적인 표출로 보살행의 실천이라

는 측면으로 결부된다.

경허 스님의 내면적인 안심은 곧 그의 수행과 깨침으로서 그 결택(決擇)은 동학사(東鶴寺)에 있을 때 깨달음의 기연이 된 ‘소가 되어도 뿔구멍 뚫을 데가 없다’라는 것에 있다. 곧 그의 오도송(悟道頌)의 표출은 그간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허 스님이 오도송에서 말한 내용은 당시의 암울한 시절과 불교의 폐허를 노래한 것이 아니다. 의발을 전할 사람이 없고 전해 받을 사람이 없는 절망이 아니다.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였고 확신에 가득 찬 큰 깨어남이었다.

경허 스님의 깨침의 외적인 표출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일상생활 그것이었다. 그것은 무애행(無礙行)을 통한 중생과의 동고동락(同苦同樂)이기도 하다. 또한 참선하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체사(一切事)에 무심(無心)하고 일체심(一切心)에 무사(無事)하면 곧 심지(心智)가 자연히 맑고 깨끗해진다고 말한다.

일체사(一切事)에 무심(無心)하라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대한 집착의 철저한 탈락(脫落)으로서 그의 수많은 시(詩)와 가(歌)에서는 그것이 겹외(劫外)의 종풍으로 나타나 있다.

경허 스님은 수행의 요체에 대해 항상 반조에 힘써 그것을 참구하고 마음이 생생하고 세밀하여 무엇이 그것을 참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화두를 참구하는 방식에 대해 무엇보다 일심불란(一心不亂)의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태 속에서 항상 성성적(惺惺寂寂)하고 균등하게 유지하는 마음으로 조상의 공안을 참구한다면 견성을 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

한편 자신의 스승에 대한 중요성과 그 가르침의 수용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인연의 소중함을 깊이 강조했다. 따라서 경허 스님에게는 계허 노사와의 인연을 비롯해 일체중생이 선지식임을 바로 알아차리지만 하던 일체의 유정과 무정이 설법을 하는 선지식이었다.

무심한 일체의 장벽(障壁)이 모두 불향상(佛向上)의 안목으로 보면 다 고불심(古佛心)으로서 만물에 법신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경허가 화광동진(和光同塵)하면서 마주치는 일체의 사물과 중생은 끊임없이 경허에게 무정설법(無情說法)과 현신설법(現身說法)을 하는 선지식의 현상이었다.

참선의 세계라는 것은 아무 것도 걸림이 없는 임운무작(任運無作)의 대자유인으로 깨침 것이 달리 없어 본래 갖추고 있는 본유(本有)의 사(事)를 누리 는 것이라 말한다.

그 임운무작의 경계가 경허 스님에게 있어서는 걸림 없는 무애행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스님에게는 일체 중생을 상대하는 보살행으로 승화됐다.



김후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격과정	교육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부교육원

창원 055-543-6155 호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산 051-441-0111
울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구 053-566-1116 해운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남 055-932-5877

교육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전국 사찰전문 공급업체

다 茶 영 瑩 보 普 이 珮

- 중국 운남성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청정지역의 야생차원을 현지인들이 채취하여 현지 공장에서 제곡화하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제품입니다.
- 정식 수입통관 절차 및 부산세관 식약청의 무농약·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 하였고 2010년 한국식품연구회에서 무농약 입증검사 실시 통과한 제품입니다.
- 다영보이는 1996년 약 12년 이상 정성을 다해 산차로 숙성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증기로 쪄어 숙차병차로 만들었으며 철저한 관리에 의해 보관하여 부드럽고 깊은 보이차만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50g 산차 45,000원 38,000원 | 100g 산차 70,000원 65,000원 | 330g 병차 165,000원 (500개 한정수량) 99,000원

순수 자연 야생보이차

• 판매원 : 마하몰 02)732-1520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토마토파르코오피스텔 1507호
• 제조원 : 다 영 보 이 02)959-8874 www.dayoungtea.co.kr / www.다영보이.kr